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엇그제 저멋더니 흐마 어이 다 늘거니
 ㉠ 소년 행락(少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업다
 늘거야 서른 말습 흐자니 목이 멘다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흐야 이내 몸 길러 널 제
 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逑)** 원흐더니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로
장안유협(長安游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근치 만나 잇서
 ㉡ 당시(當時)의 용심(用心)흐기 살어름 디되는 듯
 삼오이팔 겨오 지나 천연 여질(天然麗質)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態度)로 백년 기약(百年期約) 흐얏더니
 연광(年光) 훌훌 흐고 조물(造物)이 다시(多猜)흐야
 봄바람 가을 물이 뵈오리 북 지나듯
 설빈 화안(雪鬢花顏) 어디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필소냐
 스스로 참괴(貽愧)흐니 누구를 원망(怨望)흐리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의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곳 피고 날 저물 제 정처(定處) 업시 나가 잇어
 백마금편(白馬金騙)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고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라
 인연(因緣)을 굿쳐신들 생각이야 업슬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르려문
 열두 새 김도 길샤 설흔 날 지리(支離)흐다
 옥창(玉窓)에 심근 **매화(梅花)** 몇 번이나 띄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섯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구준비는 므스 일고
 ㉢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질의 경물(景物)이 시름업다
 가을 들 방에 들고 실슬(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디는 눈물 속절업시 험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허난설헌, 「규원가」-

(나)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론 늙들은 운는다 흐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의논 내 분(分)인가 흐노라 <제1수>
 ㉠ 보리밥 풋는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회 굿 몫의 슬크지 노니노라
 ㉡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피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라
 말습도 우움도 아녀도 몰내 묘하흐노라 <제3수>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흐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흐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뎃더라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윤선도, 「만흥」-

(다)

내가 의주로 귀양 간 이듬해 여름이었다. 세 든 집이 낮고 좁아서 덤고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채소 밭에서 좀 높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을 골라 서까래 몇 개로 정자를 얹고 띠로 지붕을 덮어 놓으니, 대여섯 사람은 앉을 만했다. 옆집과 나란히 붙어서 밭 자도 떨어지지 않았다. 채소밭이라고 해야 쪽이 겨우 여덟 발인데 단지 해바라기 수십 포기 푸른 줄기에 부드러운 잎을 훈풍에 나부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걸 보고 이름을 규정(葵亭)이라고 했다.

손님 가운데 나에게 ㉠ 묻는 이가 있었다.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풀이나 나무, 또는 꽃 가운데서 어떤 이는 그 특별한 풍치를 높이 사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향기를 높이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이나 혜초로 자기가 사는 집의 이름을 지었지, 이처럼 하찮은 식물로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해바라기에서 무엇을 높이 사신 것입니까? 이에 대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 내가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사물이 한결같지 않은 것은 그리 타고나서 그런 것입니다. 귀하고 천하고 가볍고 무겁고 하여 만의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더럽고 변변치 못하여 이보다 못한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초, 혜초는 식물 가운데 굳고도 세어서 특별한 풍치가 있거나 향기를 지닌 것들입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무리에서 뛰어나며, 세상에 우뚝 홀로 서서 명성과 덕망이 우뚝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황량하고 머나먼 적막한 바닷가로 쫓겨나서, 사람들은 천히 여겨 사람 대접을 하지 않고, 식물도 나를 서먹서먹하게 내치는 형편입니다. 내가 소나무나 대나무 같은 것으로 나의 정자 이름을 짓고자 한다 해도, 또한 그 식물들의 수치가 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천한 식물로 짝하고, 먼 데서 찾지 않고 가까운 데서 취했으니 이것이 나의 뜻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천하에 버릴 물건도 없고 버릴 재주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귀나 살바귀, 무나 배추 같은 하찮은 것들도 옛사람들은 모두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해바라기는 두 가지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능히 해를 향하여 그 빛을 따라 기울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을 충성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또 분수를 지킬 줄 아니 그것을 지혜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대개 충성과 지혜는 남의 신하 된 자가 갖추어야 할 정조이니,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겨 자기의 정성을 다하고 지혜로써 사물을 분별하여 시비를 가리는 데 잘못됨이 없는 것, 이것은 군자도 어렵게 여기는 바이지만, 내가 옛날부터 흠모해 오던 덕목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아름다움이 있는 데도 연약한 못풀들에 섞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천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조위, 「규정기」-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화자가 느끼고 있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대구의 형식을 통해 드러낸다.
- ② (나)는 자신이 자연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다)는 상이한 식물들이 지닌 강점을, 대조의 방식을 사용하여 드러낸다.
- ③ (가)는 화자가 느낀 외로움과 슬픔을, (나)는 화자가 느낀 자궁심과 만족감을, 자연물에 대한 감정 이입을 통해 드러낸다.
- ④ (나)는 화자 자신이 느낀 세속에 존재하는 것과의 괴리감을, (다)는 어느 한 대상에 대하여 가진 생각을, 자신이 지닌 인식을 통해 드러낸다.
- ⑤ (가)는 화자가 처한 상황의 비참함을, (나)는 화자가 자연에서 느낀 흥취를, (다)는 상대방이 바라는 상황이 이뤄질 경우 얻을 만족감을,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드러낸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규정기」는 다른 고전 시가와 달리 일반적인 통념과 다른 방식으로 대상을 바라본다. 또한, 당시 유배를 간 조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조위는 자기 자신을 해바라기에 투영하여 임금에 대한 자신의 충정을 강조하기도 한다.

- ① ‘해바라기’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는 평가를 부인하고, ‘해바라기’가 ‘충정’과 ‘지혜’의 가치를 지녔다고 주장한 조위는, 이를 통해 당시 통념과는 다른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봤겠군.
- ② ‘해바라기’가 ‘충정’과 ‘지혜’의 두 덕목을 지닌 것을 고려한다면, 이를 통해 조위는 자기 자신을 ‘해바라기’에 투영하여 우회적으로 임금에 대한 자신의 충정을 강조했겠군.
- ③ 당시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이나 혜초로 자기가 사는 집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조위가 ‘해바라기’로 집의 이름을 지은 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선택이었겠군.
- ④ ‘천하에 버릴 물건도 없고 버릴 재주도 없다’는 관점에서, 조위는 ‘해바라기’ 또한 그 나름의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했겠군.
- ⑤ ‘해바라기’가 자신이 ‘옛날부터 흠모해 오던 덕목’을 모두 지녔다는 점에서, 조위는 ‘해바라기’의 가치를 재고했겠군.

24. (가)와 (나)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군자호구’와 (나)의 ‘하얌’은 화자가 함께하고 싶은 인물을 멋스럽게 표현한 이미지이다.
- ② (가)의 ‘장안유협 경박자’와 (나)의 ‘먼 뵈’는 화자가 함께하고 싶은 대상을 드러낸다.
- ③ (가)의 ‘가을 들 방’과 (나)의 ‘뛰집’은 화자가 자궁심과 만족감을 느끼는 장소를 드러낸다.
- ④ (가)의 ‘원엽’과 (나)의 ‘분’은 화자가 직면한 부정적인 상황의 원인을 드러낸다.
- ⑤ (가)의 ‘야유원’과 (나)의 ‘뭍’은 화자가 흥취를 얻고자 자주 가는 장소를 드러낸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유년 시절을 추억하는 것이 무용함을 드러낸다.
- ② ㉡: 화자의 시집살이가 순탄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 ③ ㉢: 좋은 시절에 다가온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화자의 모습에서, 어떤 근심도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④ ㉣: 자연에서 누리는 소박함과 만족감을 드러낸다.
- ⑤ ㉤: 자연에 동화된 화자의 자부심과 속세의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26.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가 ‘해바라기’에서 무엇을 높게 샀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는 다른 식물은 ‘명성과 덕망’을 가졌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지만, 해바라기와 달리 연약한 식물이라고 대답한다.
- ② ‘해바라기’와 달리 ‘사람들’에게 촉망받는 ㉡는 ‘하찮은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옛사람’의 사고에 따라, ‘충성’과 ‘지혜’의 덕을 가진 ‘해바라기’의 진가를 깨닫고, ‘해바라기’를 선택한다.
- ③ ㉡는 ‘해바라기’는 ‘해를 향해 ‘그 빛을 따라 기울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식물들과 달리 충성과 지혜의 덕목을 갖는다고, ㉠가 ‘해바라기’에서 높게 산 가치를 묻는 ㉠의 질문에 대답한다.
- ④ ㉡는 ‘사람들’에게 천시받는 자신이 ‘소나무’나 ‘대나무’로 집의 이름을 짓는다면, ‘사람들’의 조소를 받을 것이라고, ‘해바라기’로 집의 이름을 짓는 것을 개탄하는 ㉠의 말에 대답한다.
- ⑤ ㉡는 ‘해바라기’는 다른 식물들과 달리 사람들이 자주 찾지 않는 식물이지만, ‘굳고도 세어서 특별한’ 향기를 지녔다고 말하며, ‘해바라기’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 ㉠의 질문에 대답한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 시가 (가)와 (나)는 각각 규방 가사와 연시조에 속한다. 규방 가사인 (가)는 남편과 헤어진 이후의 화자의 슬픔과 외로움을, 연시조인 (나)는 화자가 자연을 완상하는 모습을 통해 화자의 만족감과 자궁심을 드러낸다.

- ① (가)는 ‘가을 들 방’에서 ‘실슬(蟋蟀)이 상(床)에서 우는 모습을 통해 화자의 심화된 슬픔과 외로움을 드러냈겠군.
- ② (나)는 ‘바훤 굿 뭍’에서 자연을 마음껏 완상하는 모습을 통해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냈겠군.
- ③ (가)는 ‘자취눈’과 ‘구준비’를 통해 심화되는 화자의 슬픔을, (나)는 ‘삼공’과 ‘만승’을 통해 화자의 자궁심을 드러냈겠군.
- ④ (가)는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랴’를 통해 화자의 답답함을, (나)는 자신이 느끼는 흥취를 ‘소부 허유’에 빗대어 화자의 자궁심을 드러냈겠군.
- ⑤ (가)는 ‘설빈화안’에서 ‘면목가증’으로 바뀐 화자의 모습과 남편에게 외면 당한 모습을 통해 화자의 슬픔을, (나)는 자연을 완상하던 화자가 자신을 찾아온 ‘그리운 님’을 반가워하고, 함께 ‘님친 한흥’을 즐기는 데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냈겠군.